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9. 10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2019년 사랑 나눔 종교연합바자회'에 초대합니다.

2008년부터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서는 <종교는 다르지만 나눔은 하나다>라는 주제로 덕수교회와 성북동성당 그리고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가 종교의 벽을 넘어 한 마음으로 연합바자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10월에 진행되는 사랑 나눔 바자회는 다양한 먹거리와 식재료, 의류, 생활용품 등이 마련되며, 수익금은 전액 성북구 내 성실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뜻 깊고 의미있는 화합의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천 시에도 바자회는 열립니다.)

- ❖ 일 정 : 10월 12일(토) 오전 9시 ~ 오후 4시
- ❖ 장 소 : 성북동 진입 도로(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신한은행)
- ❖ 문 의 : 길상사 종무실 02.3672-5945



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활동' 함께해요!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고령층 어르신과 장애인 등 480여 가구에 매주 반찬과 매월 김치를 나누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IMF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톨이가 된 노인들과 장애인을 찾아 1999년부터 반찬과 김장을 담아 전해 드린 것이 시작이 되어, 오랜 세월동안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 하려는 봉사자들의 따뜻한 참여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지속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면서, 맑고 향기롭게 봉사자도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듯, 할 일이 많고, 도움을 드려야 할 대상자가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함께 나눔을 실천할 봉사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 문 의 :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사무국 02.741-4696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9 / 10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인간 부재의 시대
산다는 것 그린다는 것	08	나의 삶 나의 행복
길상사 시간여행	14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책 ②
아름다운 마무리	18	10월 결연 대상자 - 김승우(가명)
제3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수상작	20	저학년/고학년 (산문)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1	
길상사 소식	49	



• 이가은 「不二」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현대미술전공
불교의 불이(不二)사상을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시다.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발행 / 통권 296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인간 부재의 시대

글·법 정(法 頂)

최종태 선생의 작품 전시회 <일흔의 시간, 얼굴>을 보고 왔다. 오랜만에 최화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지나간 백 년, 20세기 세계미술사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인간의 형상이 그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림에서 자연의 형상이 사라졌다고 한다. 인간과 자연의 문제가 20세기의 그림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이 말에 나는 귀가 번쩍 뜨였다.

극소수의 몇몇 예술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작품의 주제에서 인간과 자연을 관심 밖에 두었다는 것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암시를 주고 있다.

거리의 풍경을 많이 그린 어떤 화가는 집과 거리만을 그렸지 거기 전혀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 얼마나 삭막한 풍경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상징한 모습인가.

예술가들이 인체는 더러 다루지만 그것은 그림의 도구로 쓰였지 인간에 대한 관심은 아니었다고 최화백은 말한다.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예술의 세계에서 인간이 사라졌다는 것은 적지 않은 충격이다. 인간 부재의 예술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사람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흙과 물과 불과 바람 그리고 나무와 새

와 짐승 등 수많은 생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커다란 흐름이 곧 이 세상이다. 산업사회 이래 탐욕스런 인간들이 이러한 생명의 흐름, 즉 공생 공존의 원리를 무너뜨려 생명의 위기를 불러들였다. 부분에만 집착한 나머지 전체를 보지 못한 현대인들의 맹목이 자초한 함정이다.

균형과 조화로 이루어진 생명의 흐름을 무너뜨린 이와 같은 현상은 거친 폭력으로 나타난다. 자연스런 흐름에서 이탈된 변괴(變怪)인 것이다. 세상은 지금 온통 폭력으로 뒤범벅이다. 가상 세계가 곧 현실 세계로 이어지고 있다.

사각 스크린 앞에서, 컴퓨터 게임에 열중하던 사람이 게임에서 번번이 패배하자 화가 나서 스크린 밖의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한 고등학생은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같은 반 친구를 수업 중에 살해한다. 그 학생은 인

터넷을 통해 폭력영화를 40번이나 더 풀이해 보면서 폭력의 불을 지피온 것이다.

이 땅의 저질 정치꾼들은 국민들의 혈세로 살아가면서 걸핏하면 욕지거리와 주먹다짐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마치 의정 활동으로 착각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야망을 채우기 위해 동과 서로 편 가르기에 열중하면서 국민들에게 끝없는 상처를 입히고 있다.

뉴욕과 워싱턴의 테러 사건을 계기로 세계는 지금 온통 폭력으로 넘치고 있다. 그리고 문명의 충돌을 들먹이면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편 가르기에 열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21세기의 '씩'을 양식 있는 사람들은 우려하고 두려워한다.

우리 나라 극장가에서는 폭력물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쉬리>, <친구>, <조폭마누라> 등이 흥행에 성공했다

는 것이다. 물론 나 같은 사람은 그런 폭력물을 관람할 시간도 관심도 없지만 폭력물이 상황을 이룬다는 것은 그 사회가 지닌 가려진 구석이 드러난 것이고 폭력에 억압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리만족의 배설 기능도 할 것이다. 그러나 말짱한 사람들에게 끼칠 정서적인 영향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눈알을 부라리며 내뱉는 거친 욕지거리와 치고받고 쓰러뜨리고 죽고 죽이는 장면을 즐기면 그런 일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르게 기억의 필름에 찍혀 잠재의식을 이룬다. 우리 마음에 그와 같은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다. 그 씨앗(因)이 어떤 상황(緣)을 만나면 예상치 못했던 현실(果)로 드러난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사건과 사고는 일찍이 우리들 자신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들이

한동안 틈을 들이다가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이 업業의 파장이고 그 흐름이다.

인간에게서 예절과 신뢰와 품위가 사라져 가는 인간 부재의 시대에 그 인간이 제대로 서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개체와 전체의 상관관계를 열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우리가 순간 순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 곧 우리들 자신을 만들고 우리 사회를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이 넘쳐나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보지 않아도 될 것은 보지 말고, 듣지 않아도 될 소리는 듣지 말고, 먹지 않아도 될 음식은 먹지 말고, 읽지 않아도 될 글은 읽지 말아야 한다. 옷이나 가구, 만나는 친구, 전화 통화 등도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적게 보고, 적게 듣고, 적게 먹고, 적게 걸치고, 적게 갖고, 적게 만나고, 적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권하고 싶다. 이 폭력과 인간 부재의 시대에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불필요한 사물에 대해

서 자제와 억제와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 「홀로 사는 즐거움」에서

법정 스님 영상 강연 & 법문

“법정 스님 입적 9주기 해를 맞아 법정 스님의 영상 강연과 다시보는 법문으로 일요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일정 : 3월 ~ 11월, 4째 일요일
(4째 일요일외에는 일요 가족법회가 병행됩니다.)
- 시간 : 오전 11시(사시에불 후)
- 장소 : 설법전

나의 삶 나의 행복

글 • 최중태

나의 스승이신 김종영 선생은 생전에 진담을 농담같이 잘하셨다. 한번은 “쓸데없는 일에 열중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좌중이 한바탕 웃었는데 그 뒤 곰곰 생각해 보니 의미심장한 말씀이었다. 선생이 작고하시고 그의 유고(遺稿)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글로 적어놓은 것이 있었다.

“동서고금을 다 보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가 쓸데없는 일에 일생을 바친 사람이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을 찾아 일생이 바쁜 것인데 어찌 그것을 역행하자는 말인가. 어쨌든 그 말씀에서 나는 지금도 큰 위안을 얻는다.

얼마 전 어느 수녀원 수녀님들이 만나자는 전갈이 있었다. 거기를 가야 옳은지 안 가야 옳은지를 한참 생각하다 그분들은 나보다 훨씬 쓸데없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만나야 옳겠다고 결정했다. 나보다 쓸데없는 일을 더 하는 분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 같은 것이 작용했다. 또 며칠 전에는 시인 구상 선생의 책을 얻어 펼쳐 들었더니 그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어떤 시낭송회에서 한 시인이 자작시를 낭송했다. 내용인즉 이런 것이었다. 남해 고도에 가서 민박을 했는데 집주인이 수달 잡는 이야기를 어찌나 재미나게 하는지 “그래 그동

안 몇 마리나 잡으셨소?”라고 물었다. 집주인은 “여태껏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라고 대답했다.

나는 쓴웃음을 삼키면서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었구나 하고 안도했다. 나는 30여 년 동안 조각을 한답시고 꽤나 열심히 덤벼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여태껏 단 한 개의 진짜 조각이란 것을 못하고 있다. 그 시인은 민박집 주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또 내 이야기이기도 했다.

어떤 신부님을 만났을 때의 일이다. 마침 옆에 아무도 없고 해서 나는 “실은 내가 하느님에 대해 몇 십년 동안 생각해 보았지만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나 몰라라 하고 앉아 있는데 그 신부님 답변이 “난들 어떻게 알아.”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너무도 놀라서 그

뒤 이삼 년간 아무한테도 그 말을 못하다 하루는 철학하시는 박갑성 선생을 만나 털어놓았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둘 다 맞는 말이라는 것이다.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나는 아직 조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무척이나 재미나는 일인 것만은 분명하다. 분수컷만 일하고 더 욕심 부려도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크게 속 썩을 것도 없다. 어지러운 것을 능력껏 가라앉히고 얽힌 것을 한 가닥씩 풀어 나가는 재미, 혼돈에서 질서로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그래서 한 치라도 더 질서 쪽으로 접근하려는 의지, 가도 가도 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갈 데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숙명이 아닐까 싶다.

한번은 학교사무실에서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었다. “놀고 있어도 즐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피카소는 이런 말을 했다. “붓을 들기는 좋은데 붓을 놓기가 어렵다.” 내일 일하기 위해서는 잠을 자야 한다는 말이 아닐까 싶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오.” 이는 카잘스의 말인데 행복을 찾는 문제에 대한 답이었다.

“지워도 지워도 다시 살아남는 비순수여!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은 사십대 고뇌의 시절, 그때의 내 절규였다. 공자 같은 위대한 인물도 철십이 되어서야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데 나 같은 사람은 자유의 뜻을 모르고 싸움판에서 살다 갈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 섭섭하기 그지없다. 마음의 평정, 깨끗함의 성취, 고독으로부터의 해방, 이를 어찌 다 풀어내랴. 살다 보면 별별 일도 다 생기는데 어릴 때 할머니로부터 ‘내 살아온 것을 글로 쓰면 책이 열두 권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은 것 같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된다. 길지도 않은 인생인데 웬 사연이 그리도 많은지. 그야말로 책으로 열두 권 감이다. 그런데 위대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다 겪었으리라 짐작된다. 세상만사 인생살이 어디서나 다 똑같은진대 건너뛰고 쉽게 산 사람들이란 있을 성싶지 않다.

한번은 참 기이한 일이 있었다. 한 순간에 내가 나를 본 것이다. 내가 살아온 전체와 내 현재 모습이 명료하게 거기 있었다. 분명한 것은 백지에 점 하나도 찍지 못한, 그렇게 완전히 무(無)였다는 사실이다. 모든 것은 내 잘못이었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부끄럽지도 않고 공포는 더욱 아니고 고독이라는 것도 없었다. 오직 기쁨만이 있었다. 순간의 환상이겠지만 나의 전부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

다. 그 뒤 나는 주판을 털고 다시 들 때처럼 내 과거를 완전히 털고 재정립하려고 했다. 그 후로 약 두어 달 가량은 세상이 어찌나 경이롭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마치 죽었다 다시 살아나 새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

환경대학원 교수 김형국 씨의 ‘아들의 아버지’라는 글을 읽고 크게 감동한 일이 있다. 세상눈으로 볼 때 집안의 부끄럼이라 할 수 있는 여러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소상히 적은 것인데 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김 교수가 연전에 내가 화집을 만들 때 날 보고 자전적 연보를 좀 자상하게 써보라고 했다. 그러기에 나는 죄가 많아 언젠가 참회록을 써야 할 사람인데 지금은 실력이 없다고 농담으로 대답한 적이 있다. 다 털면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랴. 거기에다 저 큰 세상 빛은 언제 다 갚으랴. 그림 그런다는 것이 세상 빛 갚는 한 방편이라

고 생각되기도 한다.

젊어서 한때 나는 이런 말을 했다. 나에게 시간과 돈과 사랑을 달라. 대폿집에서 부린 객기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심각할 것 하나 없는 문제였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무언가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시간이란 것은 늘 거기 있었고, 여적 굶어 죽지 않고 살아왔으며, 사랑이란 것은 내가 찾는 것이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투정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천주교회에서는 미사 때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하고 가슴을 세 번 친다. 공염불도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건성으로 사는 것이 그러저럭 몸에 배어 있다.

성경책을 보면 극적 장면이 많다. 그중에서도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있거든 나와서 돌로 이 여인을 쳐라.” 하는 대목이 인상 깊다. 정말 신

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한 장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운명하기 직전의 모습이다. 어머니의 고통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군중 틈 어딘가에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는데 나는 그 여인이 참으로 딱한 심정이었으리라 생각한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사연도 많은 그 여인. 최근에 연희동 성당 내부를 개수하면서 날 보고 십자가상을 만들라 하기에 왼쪽 팔 밑에는 성모와 요한을, 오른쪽 팔 밑에는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들어 넣었다. 저녁에 다시 작업실에 내려가 그 광경을 보니 눈물이 났다. 너무나도 딱한 저 여인, 그 여인이 자꾸만 우리 어머니 같고 또 나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는 줄곧 사람만 만들어 왔다. 사람 중에서도 여인상, 여인상 중에서도 소녀상만 만들었다. 나는 그림에서도 주로 여인의 얼굴을 그려왔다. 가끔 정물도 그리고 풍경도

그러지만 인공의 흔적이 없는 데만 찾아서 그렸다. 그러자니 자연 꽃이 좋고 바다가 좋고 하늘이 좋고 구름들이 좋았다. 나는 이제 굳이 의미를 물으려 하지 않는다.

사람을 오래 만들다 보니 좋은 얼굴을 만들고 싶어진다. 그런데 그 좋은 얼굴이라는 것이 정해진 게 없어 자꾸만 만들게 된다. 내가 본 중에 가장 좋은 얼굴은 석굴암 본존상 뒷벽에 서 있는 보살들이다. 물론 얼굴이 좋았지만 손도 좋고 발도 좋고 옷 주름 등등 모두가 좋았다. 나는 요즘도 날마다 생각하는 게 좋은 사람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 싶어질지도 모르지만….

사람 만드는 조각가 중에 자코메티라는 훌륭한 예술가가 있다. 그는 가장 작은 조각을 만들 수 있었던 조각가요, 가느다랗게 인체의 시늉만 한 사람을 만드는 조각가다. 작년에 미

국 동부에서 서부로 순회하는 그의 대(大)회고전이 있었다.

어떤 평론가가 새로운 해석을 했는데 그의 작품을 일컬어 ‘20세기의 성상(聖像)’이라 했다. 그 기사를 보고 나는 정신이 번쩍 났다. 20세기는 성상이 없는 시대였다. 그런데 자코메티는 혼자서 성상을 만들고 있었다. 일찍이 사르트르가 그를 평하여 ‘절대의 탐구자’라 했다. 그리고 보니 평론가와 사르트르 두 사람의 견해가 일치한 셈이다. 내가 정신이 번쩍 든 것은 나도 친구가 있다. 나는 외롭지 않다는 심경의 표출이었으리라. 세상 친구들은 모두 모던(modern)한 일을 하는데 나만 홀로 외딴곳에서 사람만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참 회의도 많이 했던 터라서 그랬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 사람이란 무엇이며 좋음이란 또 무엇인가. 무엇인가, 무엇인가, 어떻게, 어떻게… 나는 오늘도 계속 묻는다.

지금 라디오에서는 모차르트의 피아노곡 20번이 흘러나오고 있다. 나는 자꾸만 반복되는 잔잔한 멜로디가 웬지 그렇게도 좋다. 나는 언젠가 어떤 평론가로부터 “왜 조각을 하시오?” 하는 느닷없는 물음을 받은 일이 있다. 당황한 나머지 “글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며칠 뒤 신문에 ‘시켜서 한다는 부제를 달아 인터뷰 기사를 내놓은 것을 보았다.

그 뒤 여러 해가 지나 스승 한 분을 만났는데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 ‘시켜서 한다면서?’ 하셔서 내 얼굴이 붉어졌던 기억이 새롭다. 누군가가 있어 나를 시켜서 조각이 된다면 나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모차르트의 음악은 누가 시켜서 된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저털 수가 있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 시스티나 성당 안 미켈란젤로 천장벽화를 볼 때도 그렇다.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책 ②

글 • 홍정근

“법정 스님” 하면 떠올리게 되는 용어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낱말은 ‘무소유’이다. 법정 스님은 “필요에 따라 살되 욕망에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 욕망과 필요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욕망은 분수 밖의 바람이고, 필요는 생활의 기본 조건이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당초의 그 하나마저도 잃게 된다.”면서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발족 강연에서 말씀하셨다.

세속 명리와 번잡함을 싫어했던

법정 스님은 송광사 불일암 아래 입적하실 때 까지 상좌 스님과 지인들의 만류에도 아랑곳없이 홀로 땀감을 구하고 밭을 일구시며,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서 ‘무소유의 정신’을 지키며 청빈을 실천하셨다. 그러면서 몸소 느끼고 실천하는 맑은 삶을 주옥같은 글과 말씀으로 풀어 내셨고, 독자들은 자연에서 생활하며 청빈한 삶의 여유와 아름다움을 일깨우는 스님의 글을 통해 영혼을 정화해왔다.

1976년 범우사에서 펴낸 <무소유>는 초판 발행 후 수많은 대중에게 사랑받는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고, 스님의 삶의 자취와 청정한 영혼이 담긴 수상록 등은 출판될

때마다 수십 만 독자의 관심을 끄는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고는 했는데, 무엇보다 스님의 간결하면서도 쉬운 말씀은 일반 독자들이 불교에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데 큰 발자국을 남기셨다.

법정 스님은 1960년 초봄 ~ 1961년 운허스님의 부름을 받고 통도사로 가 <불교사전> 편찬 작업에 동참하면서, 타고난 문재(文才)를 발휘해 글을 쓰기 시작한다.

그리고 해인사 퇴설당 비좁은 방에서 ‘화엄경’을 20여 차례 읽고 또 독송하며 깨달음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선다. 작은 방 앞에는 소소산방(笑笑山房)이라는 글자를 써 붙이기도 했다.

30대 초반인 1963년부터 1973년까지 교계 언론인 대한불교신문(1960년 1월 1일 <대한불교 大韓佛敎>라는 제호로 창간되었다. 1980년 11월 언론통폐합 때 폐간되었다가 그해 12월 21일 <불교

신문>으로 속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에 ‘소소산인(笑笑山人)이라는 필명과 ‘법정’이라는 법명으로 시와 칼럼, 불교 설화를 연재하였는데, 당시의 글은 법정 스님의 초기작으로 젊은 수행자의 내면세계를 느낄 수 있다. 현재 본회 사무국에서는 당시 귀중한 자료를 불교신문 출판부와 함께 발굴하여 정리하고 있기도 하다.

스님은 불교사전과 역경 작업에 참여하면서 대장경(불교 경전의 총서)에 재미있고 교훈적인 불교 설화를 대중에게 쉽게 전하려고 하신 것 같다. 스님이 불교 설화를 모아 엮은 저서는 <백유경>, <비유와 인연 설화>, <인연 이야기>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참 좋은 이야기>, <참 맑은 이야기>, <법정 스님의 슬기로운 동화 나라 1·2·3>이 있다.

<인연 이야기> 서문에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연부(本

緣部)는 대부분 신화와 전설이 뒤섞인 옛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합리적인 논리로 전개되는 경전과 함께 이처럼 비합리적인 설화가 경전으로 결집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라고 쓰셨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법정 스님은 찬불가를 직접 작사하기도 했다. 바로 ‘관세음의 노래’이다. 1970년대 스님께서서는 “우리 민족의 시대정신과 젊은 불자들의 양성이 한국불교의 희망이요, 미래”라고 말씀하시며 찬불가를 통한 포교의 중요성에 큰 힘을 쏟으셨다고 한다. 직접 노랫말을 쓴 스님은 가곡의 대가(大家)로 잘 알려진 김동진 선생님께 직접 부탁해 이 노래를 완성했다고 전해지는데, ‘관세음의 노래’는 지금까지도 찬불가 명곡으로 남아 애창되고 있다.

관세음의 노래

삼계의 중생을 천안으로 살피시고
고해의 중생을 천수으로써 건지시는
자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오니
저희들의 어린 마음 거두어 주옵소서
나무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임이여 나투소서 그 모습 보이소서
어두운 이 세상에 그 모습 보이소서
목마른 중생에게 감로수를 내리시고
길잃은 중생에게 바른길을 열으소서
나무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이렇듯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어린이, 청소년 포교와 대중 포교를 위한 법정 스님의 깊은 애정을 찬불가로도 만날 수 있으니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스님은 범문집과 경전 번역서, 여행서 등을 저술했는데 삶의

기록과 순수한 정신을 담은 법정 스님의 산문집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영혼의 언어로 일깨우고 있다.

법정 스님의 첫 번째 수상집 〈영혼의 모음〉은 군사 독재 시대에 젊은 구도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맑고 진실한 기운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1972년 봉은사 다래헌에 머물고 있을 때 그동안 신문과 잡지에 쓴 글을 모은 책이다. 자연과 벗하며 어린 왕자와의 대화를 통해 순수한 영혼의 목소리를 내는 스님은 평범하고 무료하기까지 한 일상을 감동의 언어로 바꾸어 놓는다. 그러면 서도 군사 독재 정부의 장기 집권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언론을 통제하던 시절 인간의 언어가 사라져버림에 안타까워하며, 하늘이 맑게 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글이 담겨 있다. 특히 은사 스님이신 효봉 선사의 삶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가

는 대목은 구도자로서의 모습을 여실히 느끼게 한다.

1973년 불교신문 논설위원과 주필을 역임하며, 함석헌, 장준하 등과 함께 민주수호국민협회를 결성하고 유신철폐 개헌 서명 운동에 동참하며,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던 스님은 1975년 제2인혁당 사건을 목격한 후 큰 충격을 받아 반체제 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그해 10월 송광사 뒷산 중턱에 불일암(佛日庵)을 짓고 홀로 수행하는데, 이 무렵인 1976년 발간된 저서가 바로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 〈무소유〉이다.

그런데 〈무소유〉는 1972년 발간한 〈영혼의 모음〉에서 가려 뽑아 엮은 저서이며, 불일암에서 홀로 수행하면서 혼란한 세상을 향해 날카롭게 던진 글을 모은 저서는 1978년 발간된 〈서 있는 사람들〉이다. (다음 호 계속)

10월 결연 대상자 - 김승우(가명)

아버지... 나의 아버지...

2019년 9월 초 김승우 학생은 형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이송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용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승우 학생은 수업을 듣던 중에 서울로 급히 올라왔습니다. 김승우 학생의 형은 지적장애 2급으로 초등학교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보호자로서 아버지를 돌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승우 학생의 형을 장애인 센터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마을에 사는 지인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갔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거부하시고 병원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가 있는 할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억을 잃어 할머니의 집도 자신의 집도 찾을 수 없었고 지갑과 핸드폰까지 분실하였습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말이 어눌해지고 계속 쓰러져서 다시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김승우 학생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와 이혼하고 장애가 있는 형과 자신을 홀로 돌봐주셨던 아버지, 늘 괜찮다고 공부에만 신경 쓰라고, 미안하다고 말 씀하시던 아버지였습니다. 근래에 식

량은 줄고 술을 드시는 횟수가 늘어나 조금 걱정하긴 했지만 이렇게 쓰러지실 정도로 지치셨는지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막막한 현실...

김승우 학생의 가정에 처한 문제는 아버지와 형을 돌봐 줄 사람이 없다는 것과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현재 김승우 학생은 이미 학교에 등록금을 지불한 상태여서 2학기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와 지적장애 2급인 형을 돌보기 위해 매일 편도 2시간 30분이 걸리는 학교를 통학하면서 아버지와 형을 보살필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문제는 김승우 학생이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김승우 학생의 가정은 기초생활 수급 가정으로

수급비를 지원받아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쓰러지면서 매월 병원비 5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고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서 매월 나가는 임대료와 식비, 의류비와 같은 생계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모든 문제를 홀로 해결해야 하는 김승우 학생은 막막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돌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계비가 필요합니다. 주거비 12만 원을 포함하여 생계비로 매월 40만 원씩 1년간 지원하여 김승우 학생이 갑자기 닥쳐온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소식지 소개와 더불어 인터넷 다음 카카오톡 같이가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의 문학적 가치를 되새기고, 어린이들에게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알리고자, 지난 8월 11일에 제3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갈상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9월호와 10월호에 나누어 운문 수상작과 산문 수상작을 수록합니다.

· 저학년 산문 ·

무소유상
(장원)

나의 모든 마음들·자연들·자유

진 서 희 * 서울 연주초등학교 3학년

저의 마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글짓기 대회나 글을 쓸 때 저는 뭔가 마음이 쿵닥쿵닥 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회를 많이 가보지 않아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슬픔도 있습니다. 만약 기분이 나쁘거나 하려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울렁울렁 마음이 슬픔니다. 저는 슬플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어머니께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주셔서 어머니의 마음이 잘 담겨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머니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까지도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정직해야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배려하고 믿어주기 때문에 정직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직이 없다면 더욱더 착하고 더 혼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난도 필요합니다. 만약 장

난이 없다면 웃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난이 있어야 더욱 재미있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마음가짐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당신, 당신 외의 가족을 제일로 사랑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가족이 없다면 당신을 보호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가족이 가장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정이 필요합니다. 우정은 친구와의 관계나 친구와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정이 필요한 이유는 친구가 있어야 신나게 싱글벙글 웃고 신나게 춤을 추면서 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친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연이 필요하지요. 만약 자연이 없다면 우리는 숨을 잘 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연은 여러 가지

날씨를 알려줍니다. 구름 등 하늘에 있는 자연들이 우리에게 “오늘은 00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편리하게 날씨를 알아 볼 수 있고 날씨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여러 가지의 색깔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빛을 내뿜는 식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식물들은 자연에서 온 것이어서 우리들이 키우거나 심게 되면 자라나서 계속 심고, 자란다가 반복됩니다.

식물들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식물들을 뽑거나 베는 행동은 정말 자연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연들을 사랑하고 지켜야 합니다.

자유. 저는 자유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머니께서 너무나 자유를 많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유에 대해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쉬는 것입니다. 자유는 어린이와 어른 둘 다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

합니다. 자유는 언제나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가 없다고

해서 그 일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유를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삽시다.



아름다운 세상

양 정 인 • 서울 삼선초등학교 3학년

저는 매미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매미가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의 원인은 바로 환경오염입니다. 그 외의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무심코 버려 동물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셨습니까?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때문에 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더지 같은 경우에는 땅이 오염돼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흙에 뿌리를 주욱 뻗어 사는 나무, 우리가 먹는 채소도 오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굶어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의 이유는 자기가 쓰레기를 버려서입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지구를 봤는데 원래 초록색이었던 지구가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버린 쓰레기 때문에 지구 전체를 아프게 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외의 쓰레기 때문에 터진 사건도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다 먹은 쓰레기는 땅에 버리지 말고 들고 있다가 집에 가서 버리기입니다. 생각한 이유는 땅에 다 먹고 쓰레기만 남겨진 것을 봤고, 먹다 남은 쓰레기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수구에 음료수를 버리

지 말자! 입니다. 제가 지나갈 때마다 하수구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와서 봤더니 쓰레기가 썩어있고, 하수구 물과 음료수가 섞여있기 때문 입니다.

세 번째는 학교에서 쓰레기 치우기 봉사활동을 할 때 열심히 하기입니다. 그럴 기회는 별로 없는데 그 때 할 때 열심히 하면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보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 상 사

조 서 영 • 서울 중평초등학교 2학년

길상사는 부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오신날엔 연꽃도 만들고 아기 부처님 목욕도 시킬 수 있어서 좋다. 나는 자연을 무척 좋아한다. 그 자연의 현상을 길상사에서 볼 수 있어서 좋다. 초록색 나무, 푸른 하늘, 알록달록 야생화, 물이 흐르는 계곡과 연못까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

네 번째는 재활용을 하자! 입니다. 요즘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해 장난감 같은 것을 만들면 쓰레기가 조금이라도 없어져서 오염이 좀 막아질 것 같아서 이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을 저는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초록 지구, 깨끗한 지구에서 살도록 저라도 노력할 것입니다. 동물과 식물들도 깨끗한 지구에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서 좋다.

하지만 가끔 힘들고 안 좋을 때도 있다. 음... 예를 들어 신묘장구대다라니경을 외을 때다. 그때 부처님의 뜻을 알려고 참은 적이 있다. 또 한 번은 길상사에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108배를 한 번 해볼까?' 그래서 108배를 한 적이 있

다. 절을 한지 2분도 안되어서 몸 구석구석이 아팠다. 아깝지만 30배만 하게 되었다.

오늘은 글짓기 대회에 참석하려고

왔다. 글도 쓰고 다라니 다원에서 오미자차도 마셨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길상사는 정말 좋다. 앞으로 더욱 깊이 부처님을 믿어야겠다. 참, 가을부터는 어린이 법회에도 와야겠다.



향기상 (차하) 길상사 어린이 법회

윤은강 • 서울 대도초등학교 3학년

나는 2017년 1학년 때부터 일요일마다 길상사 어린이 법회를 간다. 9시 30분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를 한다. 집에서 쉬고 싶은데 일요일 아침에 엄마가 깨우는 소리가 짜증이 났다. 길상사에서 새로운 친구가 오는 날도 있고, 생일 파티를 하는 날도 있다.

2019년 8월 11일, 오늘은 내 생일파티를 했다. 내 생일은 8월 17일이라 8월이 생일인 친구는 나뿐이었다. 나는 집에서 친구들에게 나누어줄 구디백 13개를 만들었다. 구디백을 나누어 줄 때 즐거워하는 친구들을 보니 행복했다. 스님은 이것이 '보시'라고 하셨다.

구디백에는 젤리, 초콜릿과 얼음과자를 넣었다. 거기에다 오늘은 길상사 백일장 날이어서 팝콘과 솜사탕을 팔고, 손님들도 길상사에 잔뜩 오셨다. 오늘의 주인공은 나, 윤은강! 아침에 일어날 때, 힘이 들어도, 나는 길상사가 정말 좋다.

지난 부처님오신날, 연등 행렬에 참석한 어린이는 장학금을 주시겠다고 주지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지 스님께서 언제 장학금을 주실지 기다리고 있다. 장학금을 받으면, 반은 일요일마다 개구쟁이들을 가르치시느라 힘이 드신 법사 스님께 새 운동화를 사드리고, 나머지 반은 신한

은행에 저금을 할 것이다. 대치동 집에서 길상사까지 1시간은 걸리지만,

6학년 졸업까지 길상사 어린이 법회에 열심히 잘 다녀야겠다.



향기상 (차하2) 자연아 미안해

전유하 • 서울 신가초등학교 2학년

나는 자연이 좋다. 왜냐하면 꽃과 풀 그리고 나무들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하는 꽃은 장미꽃이고 색깔은 빨간색이다. 빨간색은 진하고 예뻐서 좋다. 그리고 산풍경도 좋고 식물들도 많고 벌레들과 곤충들도 많다. 나는 산을 보면 사진을 찍고 싶어서 어머니 아빠한테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산 풍경을 예쁘게 찍는다. 예쁘게 찍으면 엄마와 아빠가 잘 찍었다고 칭찬해주시기도 한다.

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좋아 아빠랑 등산을 했었다. 꽃도 예쁘고 나무도 예쁘고 곤충도 예뻐다. 그곳에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자연을 위해 동물원을 없애면 어떨까? 사자와 호랑이는 동물원에서 펄 공간이 없어 근육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이 자동차 같은 것을 사용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그리고 아기물개가 사람들이 버린 비닐봉지에 묶여서 죽을 뻔 했는데 다행이도 사람들이 구조해 주어서 살았다. 그래서 환경보호를 위해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사람

나는 자연을 위해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할 거다. 나는 자연한테 미안한 게 있는데 무엇이라면 플라스틱 빨대를 함부로 쓰고 비닐봉지도 함부로 쓴 것이다. "자연아, 미안해. 이제부터 너를 위해 쓰레기를 줄이고 무엇이든 아껴 쓸게. 사랑해."

· 고학년 산문 ·

무소유상
(장원)

마음의 알람시계

김 규 빈 · 서울 어울초등학교 4학년

우리 집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십니다. “따르릉, 따르릉” 제일 먼저 강남으로 출근하시는 엄마의 알람시계가 아침을 알립니다. “준비해. 준비해” 두 번째로 아빠의 알람시계가 울리는 순간 언니와 아빠는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엄마 대신 아침을 준비하시는 아빠의 모습, 머리에 헤어를 말고 등교 준비를 하는 모습이 우리 집의 아침 일상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제가 일어나 학교에 갈 준비를 합니다. 아침까지는 우리 가족 모두 몸은 바쁘지만 마음은 평온합니다.

“ 짹, 짹 ” 시간이 지나고 하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교한 후에는 이모가 언니와 저를 돌봐주십니다.

저녁에 모인 언니와 저는 저녁밥을 먹는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서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싸우고, 시끄럽다고 싸웁니다. 서로 화내고, 인상 쓰고, 저절로 큰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왜 언니한테는 양보가 안 되는 걸까요?

저녁 시간 언니와 저의 마음의 알람시계는 미움에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쟁은 이모와 시작됩니다. 언니와 싸워서 심통이 난 저는 이모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핸드폰을 본다고 뭐라 하는 이모와 말다툼을 하고, 심지어 이모는 다시는 날 안 본다고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저의 마음의 알람시계는 분노에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3번째로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길상사를 올 때마다 초록빛 나무를 보면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맑고 향기롭게 실천덕목에 욕심을 줄이고, 화내지 말고,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더불어 살라고 되어있는데 지키지 못해서 올 때마다 반성하게 됩니다. 나의 알람시계가 맑고 향기로우며 항상 맞추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월급인데 너무 쉽게 알고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구체관절인형)을 사달라 조르고, (구체관절인형)카페도 가서 옷, 가발, 액세서리, 신발들을 많이 샀습니다. 이때 제 마음의 알람시계는 행복과 사치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알람시계는 배려와 행복에 맞추어 질 수 있게 노력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책을 많이 읽고 하루하루 반성도 하고, 친구들에게는 잘 나누어 주고 칭찬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마음의 알람시계가 무지갯빛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고장 낸 나의 알람시계는 나만이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쁘고 따뜻한 마음의 알람시계를 모두 갖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맑음상
(차상)

구석구석 파란마음

김 수 리 · 서울 정릉초등학교 4학년

어제처럼 평범했던 어느 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바로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였다. 친절

하시고 재밌으셨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니 마음 한쪽이 파란 멍이 든 느낌이었다. 모두 슬퍼했고, 그 슬픔 속

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떠나셨다. 내 마음은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가끔씩 표정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정말 외롭고 슬플 때에는 혼자 있고 싶어진다.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내 마음이다. 나도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너무 슬퍼서 혼자 있고만 싶어졌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였을까, 내 마음은 점점 파란색으로 변하는 거 같았다.

한동안 슬펐던 나는, 늘 하던 일이 익숙하지 않았다. 내 마음속은 무인도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다. 세상은 참 불공평한 것 같다. 탄생이 있다면 죽음도 있다니 참 억울하고 슬픈 일이다. 태어날 수 있다면 기왕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죽음이란 정말 무서운 것 같다. 한순간에 한 사람을 데려가니까. 우리 할머니처럼, 아주 조용히. 그래서 내 마음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차갑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산책을 한다. 햇빛이 조용히 비추는 곳에서 구름

을 바라보며 숲길을 걷는 것. 이때는 생각한다. 자연은 참 아름답구나. 참 순수하구나...; 자연은 치료제다. 마음치료제. 자연은 파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자연아, 고맙다.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지금 나는 길상사, 바로 이 절에서 글을 쓰고 있다.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곳. 나도 최대한 솔직히,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내서 쓰려고 한다. 하지만 내 마음의 반은 늘 할머니 생각 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솔직히 쓴다.

우리 할머니는 지금 다시 태어나셨다. 49재를 마치고 할머니는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셨다. 나는 길을 걸을 때, 보이는 꽃이나 생명체는 다 할머니 같다. 할머니는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셨을까? 확실히 할머니는 좋은 일을 많이 하셨으니 좋은 곳, 아름다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셨을 거다. 할머니는 지금 나랑 같은 세상에 있다. 하지만 위치는 모른다. 꼭 나랑 가까운 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으면 좋겠다. 꼭 할머니를 만나보고

싶다. 하늘이 아름다운 날은 할머니가 나와 가까운 거리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믿는다.

아름다운 하늘이 있는 날이면 할머니가 물려주셨던 목걸이와 팔찌를 한 번 꼭 잡아본다. 할머니의 손길이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다. 할머니 품이 그립다. 할머니의 신호일까? 어딘지는 모르지만 좋고 행복하고 편

안한 곳에서 잘 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한다. 할머니는 내 곁에 없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계실 것이다. 내가 꼭 빈다. 현실에선 할머니가 없다고 슬퍼하기보단 할머니께선 어딘가에 다시 태어나서 잘 살고 계실거란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파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거나, 학교 가는 길목구석에 핀 민들레 꽃이어도!



우리가 지켜야 할 자연의 속삭임



이 민 지 • 서울 송덕초등학교 6학년

이 길상사라는 곳에서는, 다양한 나무, 곤충, 꽃 등등이 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에게 이로운을 주는 자연이다. 이 이야기는, 단지 평범한 개미 영금이와 꿈틀이 그리고 평범한 나무 아름이의 이야기다. 영금이와 꿈틀이는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찾아 나선다. “영금아! 아주 맛있을 것 같은 젤리를 찾았어!”

“그래 꿈틀아. 우리 이거 들고 가자.” 하지만 영금이와 꿈틀이는 대위기를 맞게 된다. “꿈틀아 피해!” “으악!” 영금이와 꿈틀이는 가던 중 사람의 발을 만나게 된 것이다. “휴…… 겨우 피했어……” 그리고 길을 가던 중 아름이를 만나게 된다. 아름이는 아름드리나무가

되고 싶은 꼬마 나무다.
 “어머! 엉금아! 꿈틀아!”
 “안녕 아릅아!”
 엉금이와 꿈틀이는 아릅이를 만나
 게 된다.
 “아릅아, 잘 지냈니?”
 “응, 근데 사람들이 나무를 함부로
 다뤄…… 또 내가 이야기 할 때면 내
 가 이상하다고 막 차버리기도 해.”
 아릅이가 말했다. 그때였다.
 “쾅”
 어느 사람이 아릅이를 차 버린 것
 이다.
 “아야… 아파……”
 모두들 그 소리를 무시했다. 그러
 나 자연 스님은 이 소리에 귀를 기울
 였다.
 “나무야, 괜찮니?”
 자연 스님이 물어보았다. 자연 스님
 은 스님의 덕목을 잘 지키지 않고, 고
 기를 먹기도 해서, 길상사에서 쫓겨
 나기 일보직전의 스님이었다.
 “아니요… 아파요…:”
 아릅이가 말하자 자연 스님은 그
 나무를 끌어 앉고 영양제도 주었다.
 “잘 자라렴.”

자연 스님은 다음날 또 그 나무를
 보러 갔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아릅이요.”
 “아릅이? 앞으로 잘 기억해 놓을
 게. 그런데 네 옆에 있는 개미는 누
 구니?”
 자연 스님이 물었다.
 “아…… 이 친구들은 엉금이, 꿈틀
 이에요.”
 “그렇구나.”
 자연 스님은 아릅이, 엉금이, 꿈틀
 이를 보기 위해서 매일 같은 곳으로
 갔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연 스
 님이 그러셨다.
 “안녕… 이제 너희들하고 이별할 시
 간이 됐구나…… 슬프네……”
 그런 의문의 말을 남기고는 자연 스
 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엉금아, 자연 스님이 안보여.”
 “그러게……”
 엉금이, 꿈틀이는 자연 스님이 보
 고 싶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의
 소리가 들렸다.
 “여기 절에서 자연 스님이 쫓겨났다
 며?”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자연 스님이 쫓겨났
 다고 했다.
 “헉……”
 엉금이, 꿈틀이는 섭섭했다. 그로부
 터 몇 년 후, 아릅이와 아릅이의 친
 구들은 모두 종이가 되어 사라졌고,
 엉금이, 꿈틀이 그리고 그들의 친구
 들은 모두 밝혀 죽어버렸다. 그리고
 이곳은 황폐해졌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해 버리거나, 곤충

들을 마구마구 죽여 버리면 이렇게
 황폐하고 비극적인 모습이 돼 버릴지
 도 모른다.
 이런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종이는
 앞뒤 모두 사용하고, 지나가는 곤충
 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자연을 아
 끼기 위해서 1회 용품 사용을 줄이
 고 집에서 학교까지 같은 가까운 거
 리는 걸어 다니고, 엄마를 도와서 분
 리수거를 철저하게 해서 자연을 아끼
 고 우리의 미래 모습이 이 이야기처
 럼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사회에 꼭 필요한 보배 무소유



강 승 민 • 서울 석계초등학교 5학년

내가 처음 무소유란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집도 돈도 그 무엇도 없는
 외로운 거지가 떠올랐다. 법정 스님
 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무소유에 대
 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으나 실
 천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았다.
 책장에서 무소유에 관한 책을 빼

서 보았다. 책을 처음 받았을 땐 몇
 장 안 읽고 덮어버린 책이었지만 책
 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자 난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생각이 들
 었다.
 무소유의 뜻은 아무것도 갖지 않
 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을 적게 가진다는 의미다. 문득 무소

유를 하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푸르고 출렁거리며 파도가 날 덮칠 것 같으면서도 육지로 오면 사르르 사라져 버리는 바다, 바다는 날 유혹했고 난 바다에 풍덩 뛰어들었다. 바다 속 모래에는 땅 위에 있는 조개껍질보다 더 온전한 조개껍질이 가득 있었고, 어찌면 진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다. 나는 바다 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며 조개껍질을 닦치는 대로 모았다. 진주는 없었지만 많은 조개껍질이 있어서 조개껍질을 집으로 가져온 뒤 이틀정도는 우쭐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점점 많기만 하고 쓸모가 없어서 우리 집 구석에 있게 되었다. 만약 내가 추억을 기억하기엔 매우 충분한 한 개의 조개껍질만 가져왔다면 어땠을까? 조개껍질이 바다에 있다면 나같이 바다에 온 애들이 잠수를 해서 반짝이는 아름다움에 놀라고 가장 예쁜 한 개를 가져가서 추억을 되살릴 것이다. 나는 내 욕심 때문에 아이들의 추억을 담은 많은 조개껍질을 가져왔다. 후회한

다. 다시 바다에 가면 억지로 가져온 것을 기꺼이 다시 바다의 품으로 돌려 줄 것이다.

법정 스님은 연필 여섯 자루를 손에 쥐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셨다. 적게 가질수록 사랑하게 된다는 말처럼 스님은 연필을 더 소중히 생각하셨을 것이다. 나도 조개껍질이 한 개 뿐이었으면 더 아꼈을 텐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사람은 왜 더 많이 가지려 할까? 돈이 많으면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책의 양이 많으면 지식이 엄청난 줄 알고 부러워한다. 사람은 남이 부러워하는 걸 즐기는 본능이 있다. 사람은 어릴 때 무소유를 실천한다. 아기에겐 배부를 만큼의 젖과 옷 몇 벌이 필요할 뿐이다. 내 생각에는 내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나이부터 소유를 즐기는 거 같다. 소유력이 생기는 까닭은 자신이 욕심쟁이라서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욕심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점은 끝이 없단 것이다. 사람의 욕

심은 과하면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되게 한다.

무소유는 욕심을 제어해주는 브레이크 같다고 생각한다. 하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더 넓게 보아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게 해준다. 욕심이라는 추진력으로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에게 무소유란 브레이크는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해주고 넌 충분히 행복해, 넌 충분히 많이 가졌으니 만족해! 라고 일깨워주는 사회에 꼭 필요한 행복 바이러사다. 비가 오던 날 내 친구가 우산을 못 가져왔다. 나는 무소유를 알기 전까지는 '어우…… 우산도 안 챙겨오면 어떡해?'라고 생각했겠지만 무소유를 안 지금은 내

가 먼저 같이 우산을 쓰고 가자고 말했다. 내 우산 반쪽을 친구에게 빌려줘 같이 쓰고 가니 어깨는 반쯤 젖었지만 마음만큼은 친구에게 내 것을 빌려주는 무소유를 실천했기 때문에 매우 훈훈했다. 집에 들어오자 엄마는 깜짝 놀라시며 우산을 안 쓰고 왔냐고 물으셨다. 난 미소 짓고는 '우산을 친구와 같이 써서'라고 대답했다.

난 내 작은 행동이 사회에 작은 온기나마 불어넣을 수 있길, 내가 진정으로 맑고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서 마음 속 화분에 무소유란 나무가 크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씨앗을 멀리 퍼트려 내 주위 사람들도 무소유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부처님께 조용히 빌었다.



나의 광복, 모두의 광복



조민지 • 서울 을지초등학교 6학년

광복이란? 광복의 사전적 의미는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은 것을 말한

다. 한국인이란 누구나 광복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광복은 조금 다르다. 나에게 광복은 우리나라를 빼앗은 일본에게 한국인의 의지와 용기를 통쾌하게 보여준 것이다. 나에게 광복은 자랑스럽지만 당시의 일본인들에게는 식민지를 빼앗긴 아까운 사건일 것이다. 총칼을 든 군대끼리의 대결도 아니고, 달랑 태극기 하나를 든 힘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제 나라를 되찾을 것이라고 일본인들은 상상이나 했을까? 이렇듯, 모두에게 광복은 조금씩 다른 의미이다.

1919년 3월 1일, 수많은 한국인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왔다. 한 손에는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태극기를 들고, 목청껏 조국의 독립을 소리쳤다. 아무 잘못이 없는 한국인들에게 일본 헌병들은 총을 쏘았다. “탕탕탕!” “주동자를 잡아라!” 일본 경찰들의 잔인한 총소리는 한국의 백성들의 독립을 향한 간절한 외침에 묻혀버렸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드디어

독립했다. 더는 일본의 식민지가 아닌,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난 것이다. 광복을 맞은 그 순간까지 노력한 한국인들은 정말 용감한 것 같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많다고 한다. 내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이다. 그렇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광복을 바라다가 용감히 돌아가셨다. 이분들의 희생 때문에 광복이 더욱 값진 것이 아닐까? 소중한 나라를 되찾고, 광복을 이루어 낸 분들의 자손이라는 것이 자랑스롭다.

한국인이란 누구나 광복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원래 한번 빼앗긴 것은 나중에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는 자유를 굉장히 아낀다. 하지만 나에게 광복은 조금 먼 이야기로 느껴진다. 내 친구들은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 혹은 고조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친척이 한명도 없을 뿐더러, 나를 제외한 가족들이 그때의 일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

래서 나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말이 나올 때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뭐.’하고 생각했다. 자신들의 할아버지 얘기라며 눈을 빛내며 공부하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다. 하지만 6학년이 되자 학교 역사에 일제강점기가 해당 되었다. 그때 나는 이름이 알려진 독립운동가보다, 무명 독립투사가 더 많다고 배웠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마음이 가벼워졌다. 혹시 내 선조도 그 많은 독립투사들 중에 한 명일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나쁜 놈들이야!” “왜?” “음, 옛날에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위안부들도 힘들게 했어!” “아, 맞아! 한국을 빼앗기도 했지?” 친구들의 대화를 듣다 보니 일본의 잘못이 새록 새록 떠올랐다. 일제강점기는 한국과 일본의 문제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호한다는 핑계로, 군대를 끌고 와서 외교권을 빼앗는 조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의 광복을 막고, 조선의 백성들을 마구 학살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행복을 채우기 위해 우리나라의 여자들을 데려가 위안부

로 삼았다. 지금 생각해도 일본은 잘못이 정말 많다. 그러면 현재는 어떨까? 지금도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나는 화가 났다. 일본이 한국에게 경제 보복을 했다는 것이다. 그 뉴스를 보고 얼마 후에 ‘노노재팬’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다. 일본에게 한국의 국민들의 힘을 보여 주자는 것이다. 나도 그 글을 읽고 동참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광복을 바라며 단결했던 것처럼, 또다시 힘을 합쳐서 일본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좋겠다.

지금 나, 대한민국의 국민 조민지에게 광복은 조금 특별하다. 나에게 광복은 우리가 미래에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 보여주는 예시이자, 한국인이 이렇게 강하고 굳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대한민국 국민 5천 2백만 명 각각의 광복이 어떤 것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광복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동심이 곧 맑고 향기로운 마음

글 • 도종환(시인, 전 문체부 장관)

제3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시상식에 와주신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글짓기 대회 시상식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맑고 향기롭게 이사장이신 덕일 스님과 이사님들 그리고 심사를 맡아주셨던 홍용희 교수님, 박형준 교수님, 함명춘 시인님 고맙습니다.

어린이 마음을 '동심'이라고 합니다. 동심은 어린이 마음이면서 하늘로부터 처음 받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심'이라고도 합니다. 시를 쓰는 마음은 '시심'이라고 합니다. 동심을 나이 들어서까지 지니고 있는 사람을 시인이라고 한답니다.

동심! 하늘로부터 처음 받은 마음인 천심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 모두는 시인입니다. 이 마음을 어

떻게 잘 지니고 있도록 돌봐주고 보살펴줄 것 인가가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이런 내용의 동시가 있어요.

집에 오는 데 해바라기가 비를 맞고 서 있다.
잠깐 우산을 받쳐주었다.

이 시속에 말하는 이는 왜 해바라기에게 우산을 받쳐주었을까요? 비를 맞고 있으니까... 비를 맞고 있으면 어떨까요?

(어린이 대답 : 차가워요, 추워요, 힘들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비가 내 몸에 떨어졌을 때 나도 맞아보았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해바라기한테 이렇게 우산을 받쳐주고 서 있었어요. 이 마음이 천심,

동심, 시심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집에서 기다리는데 안와요. 올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하고 서성이다가 문을 열고 나갔다가 집 앞에 있다가도 걱정이 되어서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을 따라서 가다보니까 아이가 해바라기한테 우산을 받쳐주고 등은 다 젖고 서있어요. 그러면 엄마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너 뭐하는 거야? 비에 다 젖었잖아. 정신 나갔니?' 또는, 등을 한 대 딱 때리거나, '빨리 가. 왜 이렇게 서있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비가 올 때도 해바라기한테 우산을 씌어주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쵸?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보다.'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이는 나와 해바라기가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너 정신 나갔니?'라고 했지만 아이의 마음은 사물과 내가, 해바라기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마음. '물

아일여(物我一如)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만, 어른들로부터 '너 몇 살이야?, 너가 아직도 어린이인줄 알아?, 너 몇 학년인데?' 이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러면 안 되는 가보다.'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시심을 버려야 하나보다. 동심은 내가 이제 고학년이 되었으니까 버려야하는 마음인가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버리게 되요. 버리게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 아빠,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이런 글짓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 마음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해바라기를 바라보고, 꽃 한 송이 바라보고 나무 한그루 바라보고, 새 한 마리 쳐다보게 하려고, 사랑의 마음으로 꽃 한 송이를 바라보고, 연민의 마음으로 꽃 한 송이를 바라보게 하려고요.

사랑과 관심을 '자(慈)라고 하고요, 연민과 애뜻함을 '비(悲)라고 해요.

그걸 합치면 '자비(慈悲)예요. 자비의 마음을 되찾게 하려고 글쓰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함께 오신 엄마 아빠는 아이들이 글을 쓰면서 꽃 한 송이, 나무 한그루를 사랑의 마음과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아이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시인으로 키워주세요. 이 아이들의 마음이 오래오래 가

도록 해주세요. 그 마음이 곧 불심이에요.

이번 글짓기 대회를 심사하면서 좋은 글을 쓰는 맑고 향기로운 마음을 가진 어린이들이 많아서 참 감사했어요. 이런 마음을 오래오래 지닐 수 있도록 함께 돕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3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심사평

글을 쓰는 사람은 상상하고 창조하는 자

글 • 홍용희(문학평론가, 경희사이버대 교수)

글을 쓴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나, 더 나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글을 쓸 때 우리는 다른 무엇을 할 때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상상하며, 더 능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글을 쓰는 공간은 나만의 무한한 상상과 창조의 공간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글을 쓰면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본성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동시에 의미 있고 풍요로운 세계를 꿈꾸고 창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응모한 여러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맑고 정직한 여러분의 마음과 창의적인 생각들을 실감 있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만의 독창적인 시선과 감각으로 주변 사물을 새

롭게 발견하고 깨워내는 작품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물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이 세상에 새로운 의미의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저학년 산문 부문 장원 진서희, <나의 모든 마음들, 자연들, 자유>는 자신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소개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보고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자유를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론이 평범하지만 정직하고 믿음직하게 느껴집니다.

고학년 산문 부문 김규빈, <마음의 알람시계>는 평온한 마음, 미움의 마음, 행복과 사치의 마음 등을 성찰하면서 예쁘고 따뜻한 마음의 알람시계를 가져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알람시계라는 비유의 보조관념을 통해 마음의 작용과 실체를 선명하게 감각화 하는 솜씨가 흥미롭습니다.

이외에도 고학년 산문 차상 김수리, <구석구석 파란마음>, 이민지, <우리

가 지켜야 할 자연의 속삭임>과 양정인, <아름다운 세상>, 조서영, <길상사> 모두 신선한 발상과 언어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산문은 내용과 형식의 일관된 구성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좀 더 유의했으면 합니다.

저학년 운문 장원, 곽동효, <자연>은 자연의 풍경을 의인화하여 짜임새 있게 표현하는 능력이 높이 평가됩니다. 특히 마지막 연에서 이러한 자연의 풍경을 "시원한/소리를 내는 악기들"의 화음이라고 정리하는 솜씨가 주목됩니다. 시상을 전개 시키는 간결한 어법과 언어를 무리 없이 다루는 능력이 시 제목 '자연'에 어울리게 자연스럽습니다.

고학년 운문 장원 박재우, <길상사>는 길상사의 생동하는 풍경을 실감 있게 그려내는 묘사력이 돋보입니다. 특히 마지막 연의 "돌단풍 잎은/나뭇가지와 번지점프하지"라는 표현이 참신하고 싱그럽습니다. <길상사>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역동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운문 고학년 차상의 엄세희, 〈자연의 종류〉, 이예화, 〈법정스님〉 저학년 차상의 김기태, 〈자연〉, 정서은, 〈무소유〉 등 모두 개성적인 시선과 감각이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시적 언어는 설명하기 보다 보여주기, 의미의 전달보다는 정서적 호소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조금 더 유의했으면 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처럼 글을 쓰는 사람

은 상상하고 창조하는 자입니다. 수상자는 물론 참가자 모두 여러분만의 개성적인 상상으로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창조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개성들이 모여 우리가 사는 세계는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수상자는 물론 모든 응모자들이 더욱 글쓰기와 친해지기를 바라면서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제3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수상자 명단			
무소유상 (장원) 장학금 50만원	운문	저학년	곽동효(서울 중평초)
		고학년	박재우(서울 중평초)
	신문	저학년	진서희(서울 언주초)
		고학년	김규빈(서울 어울초)
맑음상 (차상) 장학금 20만원	운문	저학년	김기태(서울 상경초), 정서은(서울 상경초)
		고학년	엄세희(서울 돈암초), 이예화(서울 길음초)
	신문	저학년	양정인(서울 삼선초), 조서영(서울 중평초)
		고학년	김수리(서울 정릉초), 이민지(서울 송덕초)
향기상 (차하) 장학금 10만원	운문	저학년	권아랑(서울 상경초), 김민강(서울 중평초)
		고학년	김윤서(서울 중계초), 이세화(서울 길음초)
	신문	저학년	윤은강(서울 대도초), 전유하(서울 신가초)
		고학년	강승민(서울 석계초), 조민지(서울 을지초)
장려상 장학금 5만원	운문	저학년	문지효(서울 영훈초), 박건우(서울 중평초), 박수인(서울 길음초), 신채은(서울 경희초), 이한나(서울 개운초)
		고학년	김수이(서울 은석초), 양원준(서울 수송초), 오연서(서울 원광초), 이아영(서울 삼선초)
	신문	저학년	김나윤(서울 당서초), 박서우(서울 언북초), 장현진(용인 나산초), 조현준(서울 을지초)
		고학년	김지후(서울 서정초), 박예나(경기 진전초), 신지민(인천 굴현초), 윤영우(서울 경기초), 이하은(서울 송덕초)

2019년 숲 기행 맑고 향기로운 암자를 찾아서

1. 일정

- 일자 : 10월 26일(토)
- 장소 : 충북 보은 속리산 복천암, 중사자암

2. 접수 안내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 및 길상사 신도 : 매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접수 가능(10월 7일)
- 일반인 : 매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접수 가능(10월 14일)

3. 참가비

- 회원 및 신도 : 30,000원 / 일반인 : 40,000원
- 입금처 : KEB하나은행 257-890001-69804 / 예금주 : 맑고 향기롭게
- 참가비 환불 원칙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할인 안내

- 전년도 3만 원 이상 후원 회원에 한하여 할인 가능하며 신규 회원은 후원금 납부하여 3개월 후 참여 가능
- 길상사 신도는 신도증 소지자로 한함
- 가족 참석은 직계 가족 인원으로 한함

5. 탑승지

- 길상사 일주문 : 오전 6시 10분 / 한성대역 5번출구 : 오전 6시 20분 / 양재역 2번 출구 오전 7시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6.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 접수(02-741-4696)



2019년 봉사자를 위한 숲기행

1. 일정

- 일자 : 10월 18일(금)
- 장소 : 강원도 오대산 동대 관음암, 중대 사자암, 남대 지장암
(일정은 당일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접수 안내

- 10월 1일(월)부터 각 봉사팀 담당자에게 접수

3. 탑승지

- 길상사 일주문: 오전 6시 10분 / 한성대역 5번 출구: 오전 6시 20분 / 양재역 2번 출구: 오전 7시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4. 참가비

- 2만원(현재 활동 중인 봉사자 우선 접수/ 점심식사 제공)
- 입금처 : KEB하나은행 257-890001-69804 / 예금주: 맑고 향기롭게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혼가정 480여 가구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밑반찬 2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15kg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 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또한 3월부터 10월 까지 둘째 목요일에는 김치 나눔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2,0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셔서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 의류 리폼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맑고 향기롭게 의류리폼 자원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

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의류리폼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 생태사찰 가꾸기 봉사자 모집

본모임은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우리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자리라도 생태적으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길상사 생태사찰 가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활동이 진행되오니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진인노인요양원 나눔 행사 진행하였습니다.

본모임의 진인노인요양원 자원활동팀이 지난 7월 13일 정기활동과 더불어 시설 어르신을 모시고 레크레이션과 옛 노래 부르기 에 이어서 어르신들의 노래 자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원봉사를 통해 천연 재료로 만든 탈취제와 멘소래담을 제작하여 요양원 어르신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자원활동가의 땀과 열정으로 평소 생활관에서 지루한 일상을 지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봉사자의 따스한 온정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나눔 행사 진행하였습니다.

본모임의 서울노인복지센터 정기 봉사팀은 지난 7월 22일 '말고 향기롭게와 함께하는 나눔공양'을 기획하여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에 위치한 만발식당에서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7월 22일은 중북인 동시에 오랜 공사로 인해 중단되었던 서울노인복지센터 만발식당의 재개관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봉사자분들과 함께 모여서 인사를 나누고,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점심공양으로 보양식으로 갈비탕을 준비하여 어르신들께 든든한 한끼를 제공해주셨고, 말고 향기롭게에서 준비한 꿀홍삼과 양갱, 쌀국수를 나눠드렸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참여하는 정기 자원활동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반찬 나눔 대상자들에게 추석 선물 전달하였습니다.

(사)말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대상자들이 외롭지 않게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반찬과 함께 추석 선물세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추석에도 끼니를 거르지 않고 넉넉히 드실 수 있도록 (통조림, 햄, 김, 육개장, 사골곰탕, 호박죽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도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2일(수)/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일요특강(법정 스님 영상법문) : 27일(일)/오전11시/길상사 설법전
- 필사모임(법정 스님 저서 읽기)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세심당, 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말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3월~10월 둘째 목요일 (10일)/말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

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토요일(12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넷째 토요일(19, 26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숲기행(봉사자) : 10월 18일(금) 강원도 오대산 동대 관음암 등
- 숲기행(일반) : 10월 26일(토) 충북 속리산 북천암
- 리류 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오후 12시/세계일화실
- 생태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길상사 경내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짝수 달 매주 수요일/오후 1시 30분/세계일화실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수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 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은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3층 공간은 대관으로 공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차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봉사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 햇살청소년자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에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프로그램 / 분기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과정과 함께 영상 및 문화기행 진행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봉사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 맑고향기롭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배달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대구모임 3층 '시민서로배움터' 강좌 안내
태극권, 형의권, 팔괘장 정통계승 및 기공활법 활기공 전수자이며 현재 대체의학 테라피를 진행하고 있는 백무현 선생님을 모시고, 매주 월, 수, 목 오후 8시에 몸살림 기공체조 강좌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법정 스님 책임기모임 '일기일회' 함께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 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과 지혜를 책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 / 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매월 둘째 수요일 / 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비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천연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같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사업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정기후원 / 편리한 CMS 자동이체 신청하기

정기 후원 회원 가입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접속 가입서 작성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 방문 가입서 작성 www.clean94.or.kr
온라인 후원	
중앙모임 (02-741-4696)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 817-01-0255-458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모임 (053-753-8883)	대구 002-05-016277-8
광주모임 (062-236-3129)	농협 355-0018-7812-13
경남모임 (055-266-0170)	농협 932-01-002933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사)맑고 향기롭게 지부 사무국으로 전화주셔서
회원등록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4시
- 장소 : 장소 : 극락전
- ※ 금강경 축원은 따로 접수받지 않습니다.

1000일 기도중 800일 회향

- 일시 : 10월 17일 (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 일시 : 10월 5일(토) 오후 6시 ~ 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속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선평 받습니다.

중앙절

- 일시 : 10월 7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종교연합바자회

- 일시 : 10월 12일(토)
- 장소 : 성북로 (성북동 주민센터 ~ 신한은행)

천배 철야정진

- 일시 : 10월 12일(토) 오후 8시
~10월 13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보름기도

- 일시 : 10월 13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10월 16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 일시 : 10월 22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10월 28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저녁 예불 시간 변경 안내 : 10월부터 저녁 예불 시간이 '6시'로 변경됩니다.

10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다라니 기도	10월 5일	오후 6시 ~ 8시 30분	극락전
중양절	10월 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10월 12일	오후 8시	극락전
보름기도	10월 1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10월 16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10월 2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 기도	10월 2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오후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 오후 6시	지장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세심당
중 · 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청소년방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세계 3대유적지, 황금빛 불탑의 나라

한국관광공사
길상사

미얀마 성지순례

동참금 249만원	일정 5박 7일
출발 2019년 11월 18일(월)	귀국 2019년 11월 24일(일)
항공편 대한항공 직항	문의 종무소 02) 3672-5945

여정

<p>1 황금빛 도시 양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옥타지 와불 로카찰다 파고다 까바예 파고다 쉐다곤 파고다 	<p>2 2,500개 불탑의 도시 바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쉐산도 파고다 아난다 사원 쉐지곤 파고다 떨로민로 사원 마누하 파고다
<p>3 탁발·탁발공양 만달레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쿠도도 파고다, 마하무니 마하간다움 수도원 만달레이 힐 우배인 다리 	<p>4 물의 도시 헤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도우 파고다 목이 긴 카렌족